



1968년 호주의 세계 YWCA대회. 우측이 필자

30대 초반, 나는 그때 내가 맡은 직책으로 해서 나이 어림에 대한 콤플렉스로 나이들기를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내가 어느새 50대에 들어선 지도 2년이 되었고, 그때처럼 먹는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시간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그간의 시차는 상당하다. 10년 차이로 교수벽이 몸에 밴 남편의 끊임없는 훈계를 컷전에 하고 고1된 아들의 장난과 말상대가 되고 있는 나의 기분은 아직 학창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거울에 비친 나의 외양만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다.

나는 내 생의 대부분이라 할 35년에 가까운 시간을 YWCA와 더불어 지냈다. 회원으로 출발해서 실무자로 일을 했고 지금은 자원봉사자로서, 내판에는 봉사의 보람을 찾아 시간을 쪼개쪼개 YWCA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이 평생동안 자기본업외에 남을 위해 또는 사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장(場)을 갖는다는 것은 시간의 귀중함을 더욱 느끼게 한다. 교회나 YWCA와 같은 민간복지단체가 바로 그런 구실을 하여 준다.

나는 이러한 운동체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다. 우물 안 개구리 신세도 면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삶에 의미를 더하게 하여준 것은, 인간 한사람 한사람과 사물 하나 하나의 균형과 조화를 해치는 요인을 찾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지(智)만 강조하는 풍조속에서 덕과 체가 부족한 청소년문제를 비롯해서, 남성과 권력자 그리고 강자만을 위한 논리의 사회구조적 부조리, 팽창과 편리 위주의 잘못된 발전에 기인한 생태계의 위기, 군비확장으로 인한 평화 위협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항거는 곧 오늘의 잘못된 역사의 추세를 꺾는 일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를 꺾는 아픔이 따라야 한다고들 한다.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것으로 익혀온, 희생 정신과 남의 생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모성애의 발휘로써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세계는 우리에게 이 시간, 바로 여기에서 해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리엔트시계 제공〉

시간과 나

박 영 숙

〈대한 YWCA 출판 공보위원〉

